

한국재벌의 경영적 발전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Management Development of Korean Chaebol -

고 광 명* · 황 용 철**
(Go, Gwang-Myeong) · (Hwang, Young-Cheol)

| 목 차 | |
|--------------------|---------------------|
| I. 서 론 | IV. 한국재벌의 경영·구조적 특징 |
| II. 한국재벌의 개념적 정의 | V. 결론 및 요약 |
| III. 한국재벌의 경영사적 전개 | |

I. 서 론

한국재벌¹⁾의 경영적 발전은 「한국자본주의의 발달이 재벌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에 따라……, 재벌의 발전을 무시하고 한국자본주의의 발달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한국자본주의의 주요 구성체인 재벌경영의 특징 및 자본축적구조의 해명을 통해서 재벌의 생성·발전을 좀더 명확히 하여 한국자본주의 그 자체의 특징을 상세히 밝힘에 있다.

한국재벌의 경영적 발전을 연구함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시기 구분의 문제이다. 이와 결부하여 재벌의 시기 구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의 형성과정과 관련된 재벌개념의 문제이다. 이

*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1) 본고에서는 한국에 있어서 재벌용어의 사용에 대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국의 사용법에 따라 재벌과 기업집단(기업그룹)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단, 양국의 재벌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재벌'이라 통일하여 표기한다.

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은 재벌문제를 일관성 있게 해결하고, 그리고 재벌의 전체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에 있어서 재벌 경영연구는 다양한 분석시각에서 출발하여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지만, 재벌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서는 아직도 일치된 견해를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벌의 형성시기를 근거로 삼아 재벌의 개념을 둘러싼 '家'의 論理에 대한 일련의 논쟁을 정리하여 고찰함으로써 재벌의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재벌의 경영사적 시점에서 재벌을 주로 개념적 정의와 경영사적 발전과정 측면에 초점을 두어 검토하고, 그것을 보다 일보 더 나아가 한국 재벌의 경영·구조적 특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한국재벌이 다른 어떤 국가의 재벌보다도 역사가 짧으면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1950년대 들어선 이후이다. 재벌의 형성이 다음에 논술할 19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갈 이유는 없지만, 한국에서의 근대적 기업, 더 나아가 재벌형성의 일반적 배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화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개략을 간단히 논하고, 그리고 IMF 경제위기 이전 한국재벌의 성장·도산했던 모습과 요인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II. 한국재벌의 개념적 정의

2.1. 한국의 재벌 개념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재벌이라 불리는 기업그룹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큰 역할을 다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재벌은 대기업집단, 혹은 기업그룹이라 불리지만 그것은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벌이나 기업그룹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한국에 있어서 재벌이란 용어는 지금까지 사회적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사회일반 및 매스컴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아직 그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다른 국가를 보아도 국가마다 각각 다른 사회적·역사적 환경 때문에 재벌로 보여지는 기업집단의 특성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학자에 의해 정의된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재벌 내지 이것에 유사한

정의틀 중심으로 간단히 개관하여 두기로 한다.

1985년 야스오카 시게아키(安岡重明)는 재벌이란 “가족 내지는 동족이 출자하여 지배하는 다각적 사업체로서 그 중에 대규모 사업부문(또는 기업)은 국민경제, 지방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규모를 가진다”고 정의하고 있다(安岡重明, 1990). 이에 대해 이토우 마사지(伊藤正二)는 발전도상국의 재벌을 설명하기 위해 야스오카의 정의를 단서로 하여 그것은 “특정의 가족·동족의 지배 하에 있는 기업집단”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이나 인도에서 보여지는 기업집단을 ‘재벌’이라 정의하고 있다(伊藤正二, 1983). 이에 따라 경영다각화와 가족·동족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재벌도 일본의 재벌에 유사한 것 같이 보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국내외의 간행물이나 학술연구회 등에서 발표된 재벌 혹은 이것에 유사한 기업집단에 관한 연구성과는 다양하다. <표1>은 연구자에 의한 한국재벌의 개념을 일부 요약·정리한 것이다. 그 가운데 변형윤, 사공일·Jones, 조용범·정윤희 등이 재벌이란 표현을 사용하는데 반해, 이규익·이성순, 신유근²⁾ 등은 기업집단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동성의 경우는 “다각화를 추구하는 다품종회사집단으로서 특색 있는 내부통제시스템과 사업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Chaebol³⁾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조동성, 1991).

<표1> 연구자에 의한 한국재벌의 개념적 정의

| | 사공일·Jones | 신 유 근 | 이규익·이성순 | 조 동 성 |
|--------|-----------|------------|------------|---------------|
| 개념적 용어 | 재벌(1981) | 기업집단(1984) | 기업집단(1985) | Chaebol(1989) |
| 기업의 규모 | 지주회사 | 사업집단 | 대규모기업집단 | 다품종회사집단 |
| 기업지배관계 | 족벌·일인지배 | 가족·혈족지배 | 가족·일인지배 | 가족·혈족지배 |
| 기업경영방식 | 다각적 경영 | 가족적 경영 | 가족적 경영 | 다각적 경영 |
| 정부와의관계 | 정부권력과의 유착 | 정부주도하의 성장 | 정부주도하의 성장 | 정부지원하의 성장 |

자료 : 각종 자료에서 인용작성.

2) R. M. Steers, Y. K. Shin, G. R. Ungson, The Chaebol : Korea's New Industrial Might, Harper & Row, 1989, p. 34.
 3) 조동성이 Chaebol 용어를 사용하는 한 것과 관련하여, 이성순도 외국에서는 한국의 재벌을 Jaebol 이란 고유명사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학술용어로 사용하여도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논술한 재벌에 관한 개념적 정의를 재벌 본질인 구조·형태·환경의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해도 명료하지 않은 느낌이 든다. 앞으로는 재벌개념을 기존 연구보다 한층 구체화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기존의 개념보다 체계적인 정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재벌이 현실적 존재로서 정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재벌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정의 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재벌이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학술적 용어가 아닌 그 시대의 특징을 반영하는 사회적 용어라고 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의해 재벌의 개념 특히 그 정의는 재벌의 성장과 더불어 다르게 표현될 가능성이 있다.

2.2. 재벌개념을 둘러싼 '家'의 論理

한국과 일본의 경제발전은 각각 특유한 정치·사회·경제적 조건 하에서 달성되어 언뜻 보기에 서로 유사한 재벌이 형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마다 그 개념적인 차이가 보인다. 재벌을 본질적으로 규정한다면 경영다각화와 가족·동족의 지배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분되지만, 경영다각화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은 재벌이 성장하는 가운데 생성된 동일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가족·동족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이 갖는 '집(家)'과 '이에(家)' 혹은 '가족(家族)'의 개념이 다르며 다소 차이가 보여진다. 이에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재벌의 개념을 좀더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재벌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가족(家族)·동족(同族)'의 논리를 덧붙였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는 1945년 재벌이 해체되기 이전 즉, 기업그룹으로 전환하기까지 그 자산은 가산(家産)이라는 형태로 존속하여 왔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는 '재벌'이 형성된 이후 특히 최근에 이르러 전통적인 가족상속제도에 따라 재산 분할의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재벌'은 사회학적 측면에서 보는 경우 가족·혈족에 의해 완전히 지배된 기업집단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가족·친족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논술하지만 그것과 유사한 논의를 일본에 대해서도 시도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가산의 연속성으로써 존속하여 온 일본의 재벌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명치시대 이후 일본경제의 성공 요인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일본적 경영의 기초가 된 '이에(家)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 백년에 걸쳐 형성되어 온 것으로 결국, 재벌은 그와 같은 제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는 한국의

‘집(家)’과 유사한 개념이라 볼 수 있지만 일본의 ‘이에(家)’는 한 국가의 가공동체라는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일본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독자성이란 일본의 ‘이에(家)’는 혈연가족뿐만 아니라 비혈연가족을 가족구성원으로 하여 혈연가족도 ‘이에(家)’를 이탈하면 비가족구성원이 된다는 특수한 혈연적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三戶 公, 1994).

근대화가 급속히 진행된 일본에서는 ‘이에(家)’·‘무라(村)’ 공동체가 해체하는 과정에서 근대기업이 형성됨과 동시에 평행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 ‘이에(家)’·‘무라(村)’ 의식이 침투하게 된 것이다(玉城 肇, 1981). 특히 일본의 ‘이에(家)’는 원래 경영체적 특질을 갖고 있어 기업=가공동체로 보는 지향적 경향이 기업에 정착하여 일본적 경영관행이나 제도를 탄생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결국 일본재벌의 기초가 된 ‘이에(家)’는 혈연집단이 아닌 부부관계를 근거로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토 타다시(三戶 公)의 경우는 그의 저서 《家の論理》에서 “일본의 ‘이에(家)’는 혈연집단뿐만 아니라 비혈연가족을 내포하는 생활공동체”라고 정의한다⁴⁾. 그는 이러한 비혈연가족을 내포한 경영체로서의 ‘이에(家)’를 꿰뚫는 원리를 가리켜 ‘家’의 論理라고 부르고 있다. 일본의 기업은 이러한 ‘家’의 論理에 기초를 두어 가부장제 국가 속에서 형성·발전되었기 때문에 자본의 논리 안에 ‘家’의 論理가 내포된 것이다. 이처럼 ‘家’의 論理에 의해 전개된 일본의 기업은 직계회사(直系會社), 방계회사(傍系會社), 관계회사(關係會社)와 같이 본가(本家), 분가(分家), 별가(別家)로 전개되어 일본과 같은 재벌이 형성됐다고 생각된다.

둘째, 혈연과 크게 관계된 것으로 여겨지는 가족을 중심으로 경영하는 한국의 ‘재벌’이 있다. 한국에서 ‘가족(家族)’이란 단어는 하나의 학술용어인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가족보다는 ‘집(家)’이다. ‘집(家)’이란 개념에는 가족구성원이 생활하는 공동체로서 가족 이외에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 동족·친족까지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服部民夫, 1992). 이와 같이 한국의 ‘재벌’은 가족체제를 중심으로 경영하면서 유교문화를 배경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한국의 가족제도는 혈연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에는 혈연에 의한 동족성원보다 비혈연에 의해 가족을 상속하는 인구가 많은 것이 그 특징이다.

4) 三戶 公, 家の論理 I - 日本的經營論序說, 文眞堂, 1991年, p. 309. 同, 家の論理 II - 日本的經營の成立, 文眞堂, 1991年, p. 79.

한국 가족제도의 특징에는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존속·유지시키기 위한 '長子優待不均等分割相續'이 존재한다(服部民部譯, 1978). 일반적으로 한국의 창업자 기업에는 장남 또는 직계 가족을 중심으로 한 기업계승이 많이 보인다. 그러나 많은 창업자들은 장자를 중심으로 한 승계 형태를 원하지만 차남, 삼남 등 직계가족이나 친족 중에서 적절한 후계자를 찾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 외에 직계 가족성원을 거의 배제하거나 기업창업에 관계했던 사람들, 혹은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위임하는 경향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재벌'의 대부분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특유한 가족제도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엿보인다.

이와 같이 한국의 '재벌'은 일본의 그것과 비교해서 역사도 짧고 대규모 경영을 주로 가족에 의존하는 경향이 농후하며 소유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보인다. 또한 한국 기업가들은 자기의 기업을 스스로 창립·성장시켜 왔으므로, 그 기업에 대해 특유한 애착을 가져 소유·경영을 본인과 친족에게 상속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이른바 한국의 '재벌'은 그 개념에 있어서 가족·친족으로 집중되는 특이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家)'와 '집(家)'의 論理의 차이가 이론적 입장에서 보는 경우 경영사적 연구를 포함한 그 이후 재벌경영연구의 전개에 큰 자극을 줄 것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Ⅲ. 한국재벌의 경영사적 전개

3.1. 한국재벌의 전사(前史)

3.1.1. 상업자본의 출현(1876-1910)

개화기⁵⁾에는 근대 자본주의체제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근대기업의 성립을 지향하는 상업자본의 형태를 가진 기업가가 탄생했다. 이로써 한국의 근대적 기업은 강화조약을 계기로 문호가 개방되기 시작한 1876년 개화시기에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기업의 형태로는 육의전(六矣廛) 내지는 보부상(褌負商)과 같은 특권적 상업경영

5) 개항(開港)을 부분적 개방의 의미로서 사용한다면, 본고에서의 개화기(開化期)란 전체적으로 개방한 시기를 가리킨다.

형태(강만길, 1993) 또는 면직물, 요업, 제지업, 양조업 등과 같은 가내수공업의 형태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이 시기의 상업자본의 성격은 회사의 규모도 작으면서 기업이랄 할 정도의 특질을 갖지 않는 영세자본이었다(황명수, 1982).

그러나 조선인에 의한 본격적인 기업활동은 18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상사회사뿐만 아니라 산업의 각 분야에 거친 소수의 근대기업이 설립되었다. 특히 면직물인 경우는 한국에서 최초의 기업형태를 가진 직포공장(김덕창)이 1902년에 서구식 족담기(足踏機)를 도입한 것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자본금의 규모 면에서는 소규모 공장에 불과하였지만 종래의 가내수공업이 근대적 기업형태로 발전했던 하나의 사례로 보여진다. 그 후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진 최초의 민족계기업으로는 1910년 군소 수공업자가 조직하여 경성방적주식회사의 모체가 된 경성직뉴주식회사(京城織紐株式會社)의 설립을 들 수 있다(조기준, 197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근대적 기업이 등장했던 것은 1876년 개화기 이후이다. 개화기 직후의 민족기업가⁶⁾는 매변적(買弁的) 판매활동 하에서 많은 자본을 축적했지만, 근대적 경영방법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한 자본의 규모도 작으며 기술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전근대적인 성격이 강한 기업이었다. 그러나 자연경제를 기초로 한 국내 수공업은 쇠퇴의 길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화폐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상업자본가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외국자본의 세력 하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변모하면서 근대적 민족기업의 형성 혹은 근대기업의 설립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결국 종래의 전 근대적 사회로부터 탈피하여 서서히 근대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3.1.2. 민족계기업의 생성(1910-1945)

1910년 한일합병 이전의 기업형태는 극히 작은 규모의 수공업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1910년 8월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합병되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일본의 지배와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일본에 의한 식민지시대는 그 나름대로의 근대화된 기업을 출현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그 대부분은 일본인이 경영을 한 것이었다.

6) 조기준 교수는 식민지 지배의 기업가를 '초기 공업화 단계에 있어서 서구의 소시민적 기업가'라고 지적하면서, 민족자본의 형성과 아울러 매변자본(買弁資本)의 형성도 불가피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합병 후 조선의 근대적 기업발전에는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조선총독부에 의해 1911년 1월 '조선회사령'이 공포되면서 조선인에 의한 회사설립은 상당히 억제된 바 있다⁷⁾. 그러나 1920년 4월 '조선회사령'이 폐지됨으로써 조선인에 의한 회사설립 붐이 일어났다(小林英夫編, 1994). 그 후 조선에서는 1920년대 초부터 근대기업으로 진출하면서 회사설립이 활발히 촉진되었다. 1938년 당시 조선내의 기업 수는 5,413사이었지만, 그 중 민족계기업 수는 2,278사로 전체의 40%를 차지하였다. 1920년 말 당시 조선인 소유기업 비율 18.2%(총 414사 중 99사)와 비교하여 보면 이러한 민족계기업의 증가는 괄목할만한 성장이었다. 그렇지만 민족계기업 중에서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면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이 시기에 소수의 민족계기업이 설립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금융업의 민대식계(民大植系), 방직업의 김연수계(金季洙系), 상업의 박흥식계(朴興植系), 교통운송업의 방의석계(方義錫系)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소위 민족계자본이 지배하는 비교적 자본규모가 큰 것이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민족계기업 중 해방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해 온 기업으로서는 박흥식계(朴興植系)의 백화점경영을 중심으로 한 화신과 김연수계(金季洙系)의 면직물 제조를 중심으로 한 경성방적⁸⁾, 그리고 농업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삼양사의 3사에 불과하다. 이 중 화신은 1980년대에 부도를 내어 몰락했다.

그렇지만 식민지 지배 하의 민족계기업 중 자본형성 과정상에서 일본정부의 권력 내지는 조선총독부 힘으로 성장한 기업은 상당수에 이른다. 이러한 기업이 일본정부와 유착하여 형성된 민족계 자본이었다해도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최초 민족계기업이 자본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⁹⁾.

이상으로 식민지 지배 하에서 조선인계 기업의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기업의 특색을 간단히 고찰해 보았다. 이처럼 식민지 지배 하에서 생성된 민족계기업은 그 후 한국기업의 자본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의문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생

7) 現代日本・朝鮮關係史資料第5輯, 朝鮮における日本人の活動に關する調査, 湖北社, 1977年, p. 87.

8) 조기준은 경성방적의 경우 민족자본에 의해 처음으로 형성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창립 당시 인수한 주식은 3,790주인 반면, 공모주의 경우는 16,210주이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인촌 김성수-사상과 일화, 1985년, p. 139.

9) McNamara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하에 성장한 기업이 1945년 이후에도 한국의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다 했다고 한다. Dennis L. McNamara,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Enterprise : 1910~1945*,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 49.

각하더라도 식민지 지배가 그것이 어떻게 미화되고, 그것이 갖는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민족이 갖는 경제의 축소·소멸과정에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근거로 작용한다. 그러나 한국기업은 식민지 지배 하에서 형성·성장하였으며, 그리고 제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기업경영에 관한 경험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 등에 비추어 보아 한국의 근대기업을 경영사적으로 보면 경우에는 그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2. 한국재벌의 형성·발전

3.2.1. 원조경제와 재벌의 형성(1945-1960)

일본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한국에서는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남북분단이라는 역사적 배경 하에서 독자적인 기업발전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한국기업의 성장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경제적 요인보다도 비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거기에는 해방 이후 한국기업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된 귀속재산의 불하와 외국원조 등이 있다.

먼저 귀속재산의 불하는 1945년 일본인 소유재산이 한국에 귀속되면서 미군정에 의해 접수되고 그 후 한국정부에 의해 귀속재산으로 간주하여 불하되었던 것이다¹⁰⁾. 당시 50대 재벌 중 13재벌이 불하를 받았으며, 이들 재벌에게는 자본축적의 기반이 되었다. 그 중 귀속재산을 기초로 하여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던 기업으로는 동양시멘트, 동양맥주, 한국화약, 선경, 쌍용 등이 있다.

그 후 귀속재산을 손에 넣은 민간기업 가운데 삼호와 같이 기업 간 경쟁에 지거나 중화학공업의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여 몰락한 기업도 상당수 있지만¹¹⁾, 이러한 귀속재산의 불하가 한국재벌 형성에 물적 자본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는 특혜적인 귀속재산의 불하에 의해 형성된 자본이 그 이후 대재벌로서 발전하기 위해 물적 자본을 형성하는 준비단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10) 1953년 8월 31일 관재청(管財廳)의 조사에 의하면 귀속재산 2,707사 중 1,505사를 불하하였다고 한다. 당시 귀속재산의 불하가격은 정부의 사정(査定)가격의 38~82%로 15년 거치 분할상환에 금융 용자의 특혜도 주어졌던 것이다.

11) 삼호는 부정축재자 문제에 관련하여 계열기업인 제일은행이 정부에 접수되어진 이후 주력기업인 조선방직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계열기업의 매각을 피할 수 없어 몰락·해체하였다고 한다.

다음으로 한국전쟁 이후 귀속재산의 불하에 의해 생산시설을 손에 넣은 재벌의 경영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다한 것이 외국원조이다. 미국에 의한 원조금액은 1945년부터 1960년까지 29억 5,100만 달러에 달해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모색하는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특히 1953년부터 1960년까지 20억 7,680만 달러의 대부분은 소비재이었으며, 자본재는 겨우 20%에 불과하였다(강석인, 1995).

이와 아울러 한국에서는 원조 물자인 원면(原綿), 원당(原糖), 소맥분(小麥粉)이란 소비재를 단순 가공하는 이른바 삼백산업(三白産業)이 급속히 발전했다. 이들 산업은 이 시기의 재벌형성에 주요한 산업이 되었으며 권력과 유착했다는 면에서 '삼백재벌(三白財閥)' 혹은 '특혜재벌(特惠財閥)'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전형적인 예가 현재 한국 최대 재벌인 삼성이다¹²⁾. 그 외에 삼호, 쌍용, 삼양, 럭키, 대한 등은 이들 소비재 산업에 편승하여 급성장하면서 재벌의 기초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계 은행의 편중용자와 정부계 보유은행의 불하 등이다. 특히 은행 민영화는 1954년에 시작되어 주요 시중은행은 특정 재벌의 계열에 속하면서 지배되었다. 당시 삼성은 1954년 정부의 시중은행 불하조치에 따라 4개 시중은행 중 조흥은행(50%), 상업은행(30%), 흥업은행(82%) 등 3개 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여 금융기관을 지배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50년대 한국재벌의 특징으로는 귀속재산의 불하, 외국원조의 자금, 금융, 조세혜택 등에 의해 성장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재벌의 형태를 형성한 기업은 삼성, 삼호, 동양, 삼양사, 화신, 럭키, 대한, 개풍, OB, 한국생계 등으로 당시 10대 재벌이라 불렀던 기업들이다. 따라서 당시 한국기업의 경제적 환경은 토지자본에서 산업자본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무역업을 중심으로 한 상업자본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3.2.2. 외자·특수와 재벌의 발전(1961-1971)

1960년대 한국의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는 1961년 5·16혁명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이 바탕이 되었다. 주지한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경제개발을 근거로 외자를 도입하여 수입대체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전쟁에 의한 특수 등의 환경변

12) 삼성은 1938년 삼성상회를 창립하면서 출발한 후 1951년 삼성물산, 1953년 제일제당, 1954년 제일모직을 잇달아 창립하였으며, 1958년에는 제일제당이 제분업에 이르기까지 손을 뻗치면서 삼백산업(三白産業)의 진출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화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한국은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개발정책을 개시함으로써 시멘트, 비료, 정유, 화학, 섬유 등의 산업으로 전개되는 한편, 이와 아울러 재벌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재편성되었다. 1960년대 기성재벌의 재편성과 발전요인은 주로 부정축재의 처리문제, 정부로부터 민간 시중은행의 환수, 외자도입, 특수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재벌의 경제활동을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에 참여시키기 위해 정부주도에 의해 재벌 재편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부정축재를 처리하기에 이르렀다¹³⁾. 당시 동립산업, 태창방직, 삼호재벌 등의 몰락한 기업을 제외한 주요 재벌은 경제개발과정 속에서 근대적 독점자본으로 전환하여 서서히 재벌의 경영적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정부에 의한 재벌 재편성의 수단으로써 부정축재 처리와 병행하여 시중은행의 정부환수도 이루어졌다¹⁴⁾. 결국 부정축재 처리와 시중은행의 정부환수에 의해 재벌은 상업 자본적 성격에서 서서히 중공업투자를 기초로 하는 산업자본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주어졌다.

이리하여 1960년대 이전 형성되었던 한국재벌은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지도력에 기초를 두어 정부주도의 재벌정책에 의해 재편성되었으며, 그 활동내용을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하여 갔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외자도입액이 급증하게 되자, 기성재벌(既成財閥)은 새로운 성장기회를 얻게 되었다. 당시 외자도입에 의해 성장한 기업으로서 삼성, 럭키, 쌍용, 대한전선, 현대, 신진, 코오롱, 선경, 효성, 한일합섬, 한국화학, 풍한산업, 신동아, 연합철강, 삼일그룹, 동광기업, 흥국상사, 동국철강, 기아산업 등이 있다.

다음으로 이 시기에 특기할만한 사항은 1965년 베트남전쟁 참전에 따른 특수이다. 한국의 베트남전쟁은 미국의 대한원조를 차단시키려는 정치적 의도 하에 시행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면직물, 합판, 목재, 해운 등을 중심으로 베트남 특수가 일어나 한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면 한진, 서울통상, 천우사, 경남기업, 동명목재,

13) 박정희 정권은 1961년 5월 21일 '부정축재처리기준요강'을 만들어 동년 6월 14일 '부정축재처리법'을 공포한 후 즉일 실시되었다. 그 후 1962년 4월 16일에는 '부정축재 환수를 위한 회사설립 임시특별법'이 공포되었으며, 재벌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하는 대체안이 실시되었다고 한다.

14) 당시 은행 민영화에 의해 소수재벌이 지배하고 있었던 시중은행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박정희 정권에 의해 시행된 은행 국유화 조치에 따라 재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1981년에 실시된 '시중은행 정부환수'에 의해 당시 한국은행은 일반은행의 총 주식 43%에 달하는 190만주를 보유하였다고 한다.

성장기업 등은 베트남전쟁의 특수와 수출드라이브정책으로 인해 대재벌로 성장했다. 따라서 당시 한국경제는 정부주도형이 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이 존재하였으며, 더욱이 특혜를 받은 대기업이 재벌그룹을 형성하는 경향을 낳은 것도 필연적인 것이었다. 특히 베트남 특수의 경우는 이것이 어떻게 한국경제에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해 최근에 들어 명확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朴根好, 1993). 결국 이 시기에 한국은 근대 공업국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더욱이 재벌의 부침이 치열한 속에서 외자도입, 베트남전쟁의 특수에 의해 생성된 신흥재벌(新興財閥)이 눈에 띈다.

3.3. 한국재벌의 확립과 구조조정

3.3.1. 산업재편성과 중화학공업화(1972-1981)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은 성장률이 10% 전후에 달해 의외로 예상을 상회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힘은 1970년대 들어서 한층 가속화되면서 한국경제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에 직면하면서 많은 부실기업이 발생하였던 시기였던 반면, 비경제적 측면에서는 1979년 대통령의 암살사건, 1980년 광주사건 등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킨 시기였다. 이와 같이 경제·정치적 환경 하에서 한국경제는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산업재편성을 하였던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섬유산업 등 경공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하여 온 재벌은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업종전환정책, 이른바 경공업 지향에서 중공업 지향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한 1972년을 계기로 심각한 곤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1973년부터는 중화학공업으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지침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경제력집중에 근간이 되는 기업집단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으로의 업종전환은 기업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은 정부개입에 의한 것이었다(사공일·L. P. Jones, 1981). 이 시기에 중화학공업에 참여한 기업은 현재 대표적인 재벌로 잘 알려진 삼성, 현대, 대우, 럭키금성, 쌍용, 기아 등이다.

한편, 정부는 1975년 해외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종합무역상사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장했다. 1973년 최초로 삼성물산이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된 이후 잇달아 대우실업, 쌍용, 국제상사¹⁵⁾, 한일합섬, 효성물산, 선경, 반도상사, 금호실업, 삼화,

현대종합상사, 울산실업 등 총 13사가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되었다. 각 재벌은 정부지정에 따른 특혜조치를 획득하기 위해 기업 간 경쟁 속에서 수출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타사의 흡수합병을 촉진하면서 재벌이 수출의 총량을 증대시키기에 이르렀다. 그 중 한일합성, 삼화, 울산실업 등 3사는 과당경쟁으로 인해 그 제도에서 탈락했다(삼성물산주식회사, 1996).

또 종합무역상사를 중심으로 한 재벌 재편성과 더불어 해외건설 붐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현대, 삼환, 동아, 대림 등은 해외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례이다. 이 시기의 재벌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계열기업을 급속히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갔다. 예를 들면 소비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삼성의 경우에도 조선, 종합기계, 전자,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부문으로 확대·전개하여 갔다.

이상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한국재벌은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중화학공업 분야로 진출하여 큰 성장을 달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 성장요인에는 중화학공업화 정책, 종합무역상사제도, 해외건설사업 진출 등이 있다. 더 나아가 종래의 중핵기업의 자본을 기초로 하여 신설, 흡수합병에 의해 한층 자본의 집중을 가속화시켰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한국재벌은 경영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많은 사업을 다각화한 결과, 대기업 이른바 문어발경영방식을 촉진하게 됐다.

3.3.2. 재벌정책과 구조조정 움직임(1982-IMF 이전)

한국의 재벌은 30년이란 짧은 역사 속에서 대재벌을 중심으로 고도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여 왔다. 이 기간의 재벌성장에는 정부의 재벌정책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경영규모가 외형적으로 크게 신장하면서 정부의 산업정책에 의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적어도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재벌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지속적으로 크게 신장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재벌구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재벌 나름대로의 새로운 움직임을 모색하게 되었다.

한편 1980년대 들어서 정부는 재벌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재벌의 억제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에 의한 재벌정책은 1950년대부터 1970년까지만 해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사회적인 현상이었다. 그

15) 국제그룹은 1985년 2월 정부에 의해 부실기업으로 정리되면서 각각 한일, 동국제강, 우성건설, 극동건설, 동방, 아세아시멘트, 동양고무 등에 인수되었다고 한다.

것은 1980년에 들어 재벌정책이 한층 강화되면서 국민으로부터의 반재벌 감정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는 하지만 보다 실제적으로는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투자조정 등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되었던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최근에 들어 한국재벌에는 산업재편성 혹은 변혁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이 다가오고 있다. 그 근본적 원인으로 정부에 의한 재벌 죽이기와 가족의 세대교체에 따른 재산상속 문제 등이 있다. 우선 정부에 의한 재벌정책은 그 상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는 비계열화정책과 업종전문화정책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기로 한다. 다음으로 세대교체에 즈음하여 나타나는 가족 간의 재산상속의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재벌가족 간에 재벌이 분할되거나 혹은 분할되지 않더라도 각각의 형제에 의해 서브그룹을 형성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들을 통하여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지 않는 한 모든 분야에서 세계기업과 나란히 경쟁할 수 없는 재벌 위기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한국경제는 재벌 재편성으로 한 걸음 다가서기 시작하였는데,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1994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계열기업간 재구축이 있다. 이러한 각 재벌의 재구축에는 ①계열기업 수를 합병 내지는 주식매각을 통하여 소멸시키는 것, ②계열기업 군을 업종별로 묶고 그룹 장을 두어 권한을 위양하는 것, ③오너가족 내지는 계열기업 간의 출자를 줄이는 방법 등이 있다. 결국, 정부에 의한 재벌정책에 힘입은 각 대기업그룹들은 사업재편성이란 취지 하에 기업 스스로가 업종을 전환시키는 기업구조조정을 생각함에 이르게 된 것이다.

IV. 한국재벌의 경영·구조적 특질

지금까지 한국재벌을 경영사적 관점에서 주로 재벌의 개념적 정의, 사적발전과정의 측면에 입각하여 간단히 검토하였는데, 그것을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재벌의 경영적 발전의 특질을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한국재벌의 경영상의 특질을 해명하기 위해 앞에서 고찰한 내용을 근간으로 삼아 재벌의 경영적 특질을 설명한 후, 한국의 특유한 현상인 구조적 특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한다.

4.1. 한국재벌의 경영적 특징

4.1.1. 경제력집중의 심화현상

한국경제는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왔고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존재로서 재벌의 경제력집중도가 높아 부가가치생산 대비 GNP 비율도 상당한 규모에 달하고 있다(한국일보사, 1985). 이러한 재벌 규모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로서 부가가치생산, 고용, 총생산 및 순자산, 총매출액 특히, 제조업부문의 출하액점유율 등을 들 수 있다.

<표2> 30대 재벌의 경제력집중 현황

(단위 : %)

| | 고용 점유율 | | | 출하액 점유율 | | |
|--------|--------|------|------|---------|------|------|
| | 1977 | 1982 | 1987 | 1977 | 1982 | 1987 |
| 5대 재벌 | 9.1 | 8.4 | 9.9 | 15.7 | 22.6 | 22.0 |
| 10대 재벌 | 12.5 | 12.2 | 11.9 | 21.2 | 30.2 | 28.2 |
| 20대 재벌 | 17.4 | 16.0 | 15.1 | 29.3 | 36.6 | 33.9 |
| 30대 재벌 | 20.5 | 18.6 | 17.6 | 34.1 | 40.7 | 37.3 |

자료 : 이규억·이재형, 기업결합과 경제력집중, 한국개발연구원, 1990년.

<표2>는 30대 재벌이 출하액과 고용이 전체 중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의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30대 재벌의 경우는 1987년에 출하액의 37.3%, 고용의 17.6%를 차지하고 있다. 출하액점유율은 1977년부터 1982년까지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1987년에는 고용점유율과 함께 약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 전반에 걸쳐 비중이 증가한 이유로서는 1977년 이후 화학, 기계 등 주력산업의 비약적 생산과 더불어 재벌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¹⁶⁾(이규억·이재형, 1990).

16)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이규억·이재형은 '기업집단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 진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표3> 20대 재벌의 부가가치생산 대비 GDP 비율

(단위 : %)

| | 1973 | 1978 | 1983 | 1989 | 1993 | 1995 |
|--------|------|------|------|------|------|------|
| 상위 5대 | 3.5 | 8.1 | 10.0 | 8.4 | 8.2 | 11.1 |
| 상위 10대 | 5.1 | 10.9 | 13.0 | 10.4 | 10.1 | 13.7 |
| 상위 20대 | 7.1 | 14.0 | 16.0 | 13.5 | 11.7 | 15.8 |

자료 : 신산업경영원, 한국 30대재벌 재무분석, 1996년판.

<표3>에서 보면 20대 재벌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표에 의하면 1983년 상위 5대, 10대 및 20대인 경우 각각 10.0%, 13.0%, 16.0%를 기록한 후 1989년에는 1.6%~3.0%의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93년부터 1995년 기간 중에는 1993년에 일단 감소를 기록한 후 다시 증가하고 있어 1995년도만 보더라도 거의 3%정도 증가하고 있다. 결국, 1983년과 1989년 기간 중에 재벌 대 GDP 비율이 일시적으로는 감소하였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 역으로 재벌에 대한 경제력집중 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로서는 김영삼 정권이 시행한 신경제정책의 공공사업 등에 재벌계기업이 상당수 참여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4.1.2. 문어발식 경영과 종합재벌화 지향

한국재벌은 경공업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 유통 혹은 금융 등 모든 부문에 이르기까지 다각화경영과 콘체른형 종합재벌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다. <표4>를 보면 30대 재벌이 거느리고 있는 평균 계열기업 수는 1970년 4.2사에서 1985년에는 13.5사로 약 3배정도 증가하였으며,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10년 후인 1995년에는 20.7사로 증대했다. 특히 상위 재벌일수록 계열기업 수가 증대하고 있는데 반해, 10대 재벌에서도 1981년 18.6사, 1987년 27.9사, 1995년 41.1사로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81년부터 1987년까지 10대 재벌의 업종별 추이를 보면 전기·전자 (17사), 금융(9사) 등의 부문에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섬유, 의류

등의 부문에서는 역으로 감소하고 있다. 결국 1980년대에 들어서 사양산업에서 철퇴하여 성장산업으로 진출을 도모하는 경향이 보이면서 예전과 다름없이 섬유산업에서 금융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거처 손을 뻗치고 있다.

<표4> 30대 재벌의 계열기업 수의 변화 추이

(단위 : 수, %)

| 년 도 | 1970 | 1979 | 1982 | 1985 | 1987 | 1989 | 1992 | 1995 |
|---------|------|------|------|------|------|------|------|------|
| 총계열기업수 | 126 | 429 | 402 | 404 | 474 | 513 | 582 | 620 |
| 평균계열기업수 | 4.2 | 14.3 | 13.4 | 13.5 | 15.8 | 17.1 | 19.4 | 20.7 |

자료 : <표3>과 동일.

4.1.3. 정부와의 유착관계

한국재벌은 정부와 정치권력과의 유착관계가 심하며¹⁷⁾ 오랫동안 정권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 힘을 자유롭게 이용하려고 노력했다. 재벌은 정부로부터 여러 형태의 혜택, 보호, 원조를 받으면서 이른바 불하, 인허가, 용자, 독과점 등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며 급성장하여 온 것이다. 특히, 재벌에 의한 사업확대 자금은 상당할 액수에 달할 정도로 정부자금 내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 혹은 정부계 은행의 보증 하에 도입된 외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결국, 당시의 한국재벌은 거대한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 혹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건이었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한국재벌은 과거 40년 동안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사업확대와 권력 유지를 위해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한편으로 재벌은 1961년 5·16혁명, 1980년대 제5공화국, 1990년대 비업무용부동산취득사건을 계기로 권력과의 유착관계가 다소 무너진 몇 가지 사례도 있다. <표5>는 정부와 재벌간에 유착관계가 문제가 된 몇 사례를 간단히 정리한 것인데, 이 표에 의하면 삼학소주, 국제그룹¹⁸⁾을 제외하

17) 이필상(고려대) 교수는 재벌과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재벌이 정치권력보다 우위에 서있는 역학관계의 시대가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동아일보, 뉴스플러스, 1995년 11월 23일, p. 29.

18) 1987년 국제그룹의 해체원인을 기업의 부실경영과 정치적 이유에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해체는 정치적 의도 하에 부당하게 행해진 것으로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993년

면 1997년 IMF 경제위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기업이 존속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조치에 의한 사법처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재벌간의 관계가 꾸준히 지속되면서 재벌의 경영부실과 함께 외형적으로 비대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여겨진다.

<표5> 재벌과 정권과의 유착관계가 문제가 된 주요 사례

| 정 권 | 그룹 | 대상자 | 유착이유 | 정부조치 | 결과 |
|-------|------|-----|--------------------|-------|------|
| 박정희정권 | 삼학소주 | 불명 | 야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 세무사찰 | 몰락 |
| | 쌍용 | 김성곤 | 정치에 직접 참여한 사례 | 그룹죽이기 | 존속 |
| 전두환정권 | 국제 | 양정모 | 5공 정권에 대한 정치자금의 부실 | 금융규제 | 공중분해 |
| 김영삼정권 | 현대 | 정주영 | 정치에 직접 참여한 사례 | 금융규제 | 존속 |
| | 포항제철 | 박태준 | 대통령 후보자 경선에 대한 반감 | 세무조사 | 존속 |
| | 한보 | 정태수 | 택지개발을 둘러싼 부정의혹사건 | 사법처리 | 존속 |
| | 한양 | 배종열 | 민정당 연수원의 매각특혜 사건 | 사법처리 | 존속 |
| | 동방유광 | 신명수 | 비밀 정치자금과의 관계 | 사법처리 | 존속 |
| | 선경 | 최종현 | 비밀 정치자금과의 관계 | 사법처리 | 존속 |
| | 삼성 | 이건희 | 비밀 정치자금과의 관계 | 사법처리 | 존속 |
| | 대우 | 김우중 | 비밀 정치자금과의 관계 | 사법처리 | 존속 |

주 : 1995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 동아일보, “재벌40년”, 1995년 11월 4일.

朝日新聞, 1995年 11月 4日付 자료에서 인용작성.

4.1.4. 금융기관의 미소유

한국재벌은 시중은행과 같은 대규모 은행을 소유하지 않은 것이 그 특징이다. 그러나 한국의 재벌 중에는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의 주식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

재판에서 전 회장인 양정모씨가 승소한 바 있다

해 계열회사를 거느리면서 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 경향도 보인다.

더 나아가 기업의 공개촉진법에 따라 증권회사, 단자회사 등에도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6>은 1995년 금융, 보험, 증권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상황을 요약한 것이다. 30대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관련 회사는 합계 48사, 특히 10대 재벌은 30대 재벌보다 보유주식의 절반 이상인 27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5년 시점에서 본다면 당시 정부규제 하에서 재벌이 금융기관을 소유하기에는 많은 곤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 은행자유화가 원활히 추진되면서 대주주의 경영지배에 의한 폐해의 가능성이 늘어날 전망이다.

<표6> 재벌이 소유한 금융관련 계열기업의 현황(1995년)

(단위 : %)

| 상위 재벌 | 계열기업총수 | 금융관련기업 | | | |
|-----------|--------|--------|------|------|----|
| | | 금융회사 | 보험회사 | 증권회사 | 소계 |
| 1-10위 재벌 | 324 | 12 | 7 | 8 | 27 |
| 11-20위 재벌 | 178 | 8 | 3 | 4 | 15 |
| 21-30위 재벌 | 118 | 5 | 0 | 1 | 6 |

주 : 투자금융, 신용카드, 투자자문회사 등은 제외함.

자료 : 신산업경영원, 한국 30대재벌 재무분석, 1996년판에서 일부 인용작성.

4.1.5. 재단의 지주회사화

1970년대에 들어 기업의 경영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업재단이 잇달아 설립되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대에는 경제·사회의 변화와 민주화의 추세에 따라 재단설립이 크게 증가하였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재단은 1936년 6월 (주)삼양사의 양영회(養英會)이며, 기업재단을 설립한 후의 평균 년수는 1992년 말 기준으로 13.1년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1993). 이처럼 한국의 주요 재벌은 광범위하게 육영, 교육, 문화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특히 재벌에 의한 장학·문화재단의 설립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1970년대에 들어서는 절정에 달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당시 재벌이 설립한 기업재단으로는 현대의 아산사회복지재단, 대우의 대우문화복지재단, 삼성의 삼성미술문화재단, LG의 연암문화재단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재벌이 재

단을 설립한 이유는 재벌총수가 계열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주회사의 역할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에서 법적으로 지주회사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은 각종 장학·문화재단을 지주회사 형태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여겨진다(유인학, 1991).

4.2. 한국재벌의 구조적 특징

한국재벌의 구조적 특징은 거의 모든 기업에 있어서 가족소유가 지배적이며 소유권과 경영권의 일치 정도가 높은 경영체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재벌의 구조적 특징을 가족의 소유지배, 가족의 경영지배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4.2.1. 가족의 소유지배

한국재벌은 선진국에 비해 역사가 짧고 자본시장도 아직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모 자본조달은 주로 가족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 그 결과, 소유권의 집중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여겨진다. 또한 한국재벌의 발전과정을 보더라도 오너 스스로가 재벌을 창업·육성하였기 때문에 그 재벌에 대해 특별한 애착을 가져 그 소유권을 본인과 가족에 상속시키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결국 한국재벌은 소유구조에 있어서 친족으로의 집중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한국재벌의 소유구조의 특징은 재벌의 창업자와 그 가족 내지는 친족에 의해 대량의 주식을 소유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표7>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주식소유 구조(1994년 4월 1일)

(단위 : %)

| | 내부주식소유비율 | | | | 자기자본 비율 | 공개비율 | |
|-----------|----------|------|------|------|------------|------|------|
| | 동일인 | 계열회사 | 특수관계 | 총계 | | 회사채 | 자본금 |
| 5대기업집단 평균 | 3.3 | 38.5 | 5.8 | 47.5 | 24.4 | 26.4 | 52.0 |
| 10대기업집단평균 | 3.2 | 34.6 | 5.0 | 42.8 | 23.7 | 27.2 | 54.2 |
| 30대기업집단평균 | 4.2 | 33.1 | 5.5 | 42.7 | 22.2 | 26.6 | 56.8 |

주 : 금융, 보험은 제외함.

자료 : 안종길, 금융환경변화와 은행·기업간관계의 발전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5년.

<표7>은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주식소유 구조를 살펴본 것이다.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는 내부의 주식소유 비중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1994년 시점에서 보면 42.7%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계열기업의 주식소유 비율은 33.1%에 달하고 있다. 이로써 동일인(同一人)¹⁹⁾이라는 대주주의 주식비율은 겨우 3~4%정도에 불과하지만 계열기업이 소유하는 주식비율을 포함시키면 모기업 및 계열기업의 기업경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규억·이성순에 의하면 한국 기업집단의 소유집중 현상은 기업공개에 부진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한 개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해 일방적인 출자뿐만 아니라 기업간의 상호출자를 통해 소유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30대 기업집단의 공개비율을 보면 자본금을 기준으로 56.8%인데 반해 회사채 기준으로는 1985년 합계 331사 중 91(27.5%)사, 1994년에는 합계 616사 중 164(26.6%)사밖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 결국, 기업규모가 큰 계열기업을 제외하면 아직도 기업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계열기업이 기업공개를 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규억·이성순, 1985).

4.2.2. 가족의 경영지배

한국재벌의 소유집중은 일인 내지는 가족에 의해 소유되며, 그 소유권을 배경으로 기업활동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 한국의 기업집단은 개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되며 가족이나 친척에 대한 지배력이 상당히 강하다. 이와 같이 한국재벌은 예외 없이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경영형태를 가지며, 또한 단단한 혈연적 가족결합을 그 특징으로 하는 가족주의적 폐쇄성을 갖고 있다. 이른바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 기업공개촉진법에 의하면 同一人이 기업을 공개할 수 있는 주식소유 비율은 발행주식의 총수 5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결국 다수의 일반 소액주주가 단일주체로서 행동으로 이행하지 않는 한 기업지배력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표8> 재벌의 소유와 경영지배 비율(1982·1992)

(단위 : %, 억원)

| | 자본금 | 상장기업 | 주식지배 비율 | | 가족의 경영지배 | |
|--------------|--------|------|---------|-------|----------|-------|
| | 1992 | 1992 | 1982 | 1992 | 1982 | 1992 |
| 5위 그룹 | 10,654 | 60 | 31.60 | 23.80 | 11.53 | 8.87 |
| 1~15위 그룹 | 6,027 | 106 | 31.61 | 22.91 | 21.25 | 11.32 |
| 16~30위 그룹 | 1,429 | 59 | 34.26 | 31.08 | 25.34 | 25.57 |
| 총 평균 | 3,728 | 165 | 32.93 | 27.35 | 23.29 | 18.45 |

자료 : 服部民夫, '韓國財閥の所有と經營・再論', "東經大學會誌(188)", 東京經濟大學, 1994年.

<표8>은 재벌의 소유와 경영지배 비율에 대해 1982년과 1992년도를 각각 비교한 것이다. 주식지배와 가족의 경영지배에서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6~30위 그룹에서의 가족의 경영지배 비율은 25.34%에서 25.57%로 겨우 0.23%정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상위 15위 그룹보다 하위 30위 그룹편이 가족에 의한 경영지배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10년 간에 거친 무리한 사업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의한 경영지배가 흔들리지 않았음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상위 기업집단의 경우는 기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의 경영지배로부터 부분적인 전문경영자의 지배로 옮겨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에 있어서 재벌의 경영구조는 가족 혹은 계열기업의 소유권에 기초를 둔 가족에 의한 경영지배가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급속한 재벌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 상태에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벌경영의 특징은 이사회와 최고경영자 등에 의해 구성되고 있는 점인데, 한국재벌의 법적 기구인 이사회는 소유경영자 측이 경영지배를 합법화하는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것이다. 또한 한국과 같은 소유경영 체제의 경우, 이사회는 특정의 주식 소유자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면서 기업활동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재벌의 이사회 구성이 내부이사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외이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파악된다.

V. 결론 및 요약

한국의 재벌개념은 상당히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서 재벌의 순위를 결정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것은 재벌의 부침이 치열하여 각 시기에 따라 순위변동이 크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벌경영사의 기초적 연구가 되는 한국재벌의 경영적 발전에 대해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논술한 한국재벌의 경영사적 변천과정에서 경영적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재벌 순위의 변동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부터 1995년까지 약 45년여 상위 위치를 고수한 기업은 삼성, LG 정도이고, 동양, 한진, 두산, 삼양사 등은 상위 재벌은 아니지만 재벌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현대는 1950년대에 하위 위치에 머물러 있었는데 1970년대 중화학공업 정책에 힘입어 급부상한 재벌이다. 대우는 1970년대에 들어서 무역업을 중심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해 1994년에는 매출액 제4위를 차지한 바 있다. 선경은 1980년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하면서 1980년대 후반에 5대 재벌의 범주에 진입하게 되었다.

한편 삼호, 개풍, 화신, 대한전선 등은 1950년대에는 상위 위치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부터 1970년 사이에 도산, 혹은 해체된 대기업이다. 특히 1980년대 국제그룹의 몰락은 정치적 영향력의 정도를 잘 반영한 사례라 볼 수 있다. 결국, 한국의 재벌은 형식적인 창업의 시기는 별도로 하더라도 기업으로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1945년 해방 이후이다.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은 삼성보다 그 생성 시기가 늦었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재벌의 생성 시기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삼성재벌이 형성된 1950년대 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한국재벌은 경제개발과정 속에서 급속히 형성·성장하여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경제개발정책이 실시되기 이전, 이미 재벌이라는 형태가 형성되어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그 이후에도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그룹은 경제개발 정책과 아울러 적극적으로 기업확장에 힘을 기울여 대재벌로서 성장하여 왔던 것이다.

결국 기업은 어떤 시기에도 관계없이 그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와 상호관련성을 가지면서 변모·발전한다. 한국도 예외 없이 산업화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기업도 변화·발전하는 과정을 걸어 온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기업발전은 그 역사에 있

어서 다른 국가와는 상이하고 특유한 발전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기업과 정부가 갖는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였던 것으로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는 한층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여 나갔다.

이상과 같이 한국재벌은 가족 혹은 계열기업의 소유권에 기초를 두고 가족이 경영 지배하면서 발전하여 온 것이다. 결국 한국은 재벌의 경영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전근대적인 기업형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재벌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유가족이 아닌 전문경영자에 의해 기업을 경영하는 선진국 기업형태를 가져야만 지속적으로 경영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석인(1995), 외자도입과 한국의 경제발전, 서울, 범신사.
- 강만길(1993),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서울, 고려대학교.
- 동아일보사(1985), 인촌 김성수-사상과 일화, 서울.
- 매일경제 산업부·한국경제연구원 편(2000), 한국재벌 미래는 있는가,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신산업경영원(1996), 한국 30대재벌 재무분석, 서울.
- 사공일·L. P. Jones(1981), 경제개발과 정부 및 기업가의 역할,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삼성물산주식회사(1996), 종합상사 20년사, 서울.
- 전국경제인연합회(1993), 한국기업재단총람, 서울.
- 조기준(1974), 한국기업가사, 서울, 박영사.
- 조동성(1991), 한국재벌연구,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이규억·이성순(1985), 기업결합과 경제력 집중,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이규억·이재형(1990), 기업결합과 경제력집중,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이광규(1975),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일지사.
- 이한구(1999), 한국 재벌형성사, 서울, 비봉출판사.
- 안종길(1995), 금융 환경변화와 은행·기업간 관계의 발전방향,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유인학(1991), 한국재벌의 해부, 서울, 풀빛.
- 한국일보사 경제부 편(1985), 한국 50대재벌, 서울, 경영능률연구소.
- 황명수(1982), 기업가사연구, 서울, 단국대학교.
- 伊藤正二(1983), 發展途上國の財閥, 經濟研究所.
- 現代日本·朝鮮關係史資料第5輯(1977), 朝鮮における日本人の活動に關する調査, 湖北社.
- 小林英夫編(1994), 植民地への企業進出-朝鮮會社令の分析, 柏書房.

三戸 公(1994), 「家」としての日本社会, 有斐閣.

_____ (1991), 家の論理 I - 日本の経営論序説, 文眞堂.

_____ (1991), 家の論理 II - 日本の経営の成立, 文眞堂.

玉城 肇(1981), 地方財閥と同族結合, お茶の水書房.

服部民夫(1994), '韓国財閥の所有と経営・再論', "東経大学会誌(188)", 東京経済大学.

_____ (1992), 韓国-ネットワークと政治文化, 東京大学出版会.

_____ (1988), 韓国の経営発展, 文眞堂.

_____ 譯(1978), 韓国家族の構造分析, 圖書刊行会.

朴根好(1993), 韓国の経済発展とベトナム戦争, お茶の水書房.

Dennis L. McNamara(1990),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Enterprise : 1910~1945*,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49.

R. M. Steers, Y. K. Shin, G. R. Ungson(1989), *The Chaebol : Korea's New Industrial Might*, Harper & Row, p. 34.